

전남 기업 26곳 2050 탄소중립 선언

광양제철소·LG화학·GS칼텍스·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 등 참여 '변화 선도하는 경제마당'서 디지털 시대 전남 전략산업 모색 특강

포스코 광양제철소,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 전남지역 주력 기업 26곳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 7월 구성된 2050 전남도 탄소중립 산업부문 협의체에 참여한 바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무안 남악에서 열린 '2050 산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식'에서 이들 기업들은 탄소중립 선언문을 채택·서명하고 김영록 지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이날 공동선언식은 경제인과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

당'에서 진행됐다.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은 전남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트렌드 공유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자리로 지난 2019년부터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포스코광양제철소, 현대삼호중공업,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경제인과 (사)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전남도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제마당에선 '갯지피티(GPT),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역 시대 경영환경 변화와 미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분야 권위

자인 안중배 국제미래학회장의 경제 특강도 진행됐다. 안중배 회장은 20년 전 미래학의 불모지였던 국내외 해외 미래학자를 규합해 국제미래학회를 창립했다. 100여 회의 국제 미래학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0여권의 미래학 보고서 및 서적을 발간했다.

또 1층 행사장에서는 지난 9월 진행된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에 참여한 경제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사례 공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 회도 함께 열려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영록 지사는 "고급리, 고품질,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남의 경제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경제인에게 감사드린다"며 "세계 무대로 나아가 전남의 위상과 저력을 떨치는 경제인들의 성장과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사회서비스원, 돌봄 사각지대 해소 협약

서부종합재가센터-무안 자혜양로원

전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강성휘) 직영시설인 서부종합재가센터는 지난 17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노인 복지 발전을 위해 자혜양로원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도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양로시설 입소자가 퇴소한 후 발생하는 일시적 돌봄 공백에 대해 신속하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시설 입소자 퇴소 후 안전한 돌봄망 구축을 위한 돌봄서비스 연계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입소 연계 협력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의 사안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강성휘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연계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종합재가센터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로 긴급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전남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서비스(공유냉장고, 병원이동 지원서비스, 특지역 돌봄특화사업 '다도애', 찾아가는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고향사랑 홍보 공공기관 찾아갑니다

경찰·교육청 등 방문 활동

전남도가 연말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고향사랑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번 찾아가는 고향사랑 홍보는 목포시, 무안군과 함께 22일까지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전남도경찰청을 방문해 홍보부스를 설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답례품 전시, 홍보물 배부 등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인지도 향상을 위해 고향사랑 제도를 홍보했다.

전남경찰청 직원들은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 전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직접 실천했다. 박정보 전남경찰청장은 "이번 홍보행사를 보고 내 고향 진도군에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했다"며 "여민동락의 마음으로 고향사랑제도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전남도는 20일과 22일 전남도교육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홍보에 나섰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연말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고향사랑 홍보를 기획했다"며 "전남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에 참여해 세액공제, 답례품, 할인가맹점 등 혜택을 경험하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교통연수원-어린이집연합회 교통사고 예방교육 협약

일자 : 2023. 11. 20(월) 전남도교통연수원 전남어린이집연합회



전남도교통연수원(원장 이병희)과 전남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상선)가 지난 20일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은 향후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함께 할 예정이다. <전남교통연수원 제공>

전남도, 유기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업 확산

12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신청

전남도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다. 상토는 공시된 제

품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비작물 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정)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만생종)이며,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 농가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기준은 유기인종 농가는 ha당 200만원, 무농약 인증 농가는 ha당 150만원이다. 일반농가는 ha당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오는 12월 29일까지 토양검정 결과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관보전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농지는 농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토양개량제 지원 농지는 유기농업자재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에너지공대, 농업 부산물 자원화 협력

기술개발 공동연구 업무협약

전남도가 지난 13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농업부산물이나 잔재물, 저장 중 폐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자원화 기술 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농업부산물이나 잔재물을 이용한 생분해성 소재 자원화 기술 개발 및 농산업 연관산업 육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 농업·농촌 발전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인력양성 등이다. 두 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지역대학 중심의 연구 허브 구축과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해 농산업의 활력을 증진기로 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농업부산물 자원화 기술개발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부총장은 "켄텍은 유기성 부산물로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업사이클링 특허기술을 실용화해 지역 현안 해결과 바이오 플라스틱 등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홍재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세계적 에너지 분야 특화 대학인 켄텍과 전남 농업 현안 해결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내년 농기계 임대사업비 149억 확보

무안에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내년엔 자율주행 트랙터가 보급될 예정이다. 전남도가 2024년 농기계 임대사업비 149억원을 확보해 다양한 신규 농기계를 각 시·군 사업소에 구비할 수 있게 됐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업인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소 설치, 임대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기계에 필요한 농기계를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비는 국비 309억원을 포

함한 619억원으로 이 가운데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74억원과 함께 지방비 포함 149억 원을 확보했다. 세부 사업별로 '농기계임대 사업소(분소) 설치'는 화순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등 5곳으로 전체 사업비는 45억원(국비 22억원)이며 개소당 9억원이다. 마늘, 양파 등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비는 77억원(국비 38억원)이며 대상은 고흥, 강진, 해남, 함평, 신안 등 10곳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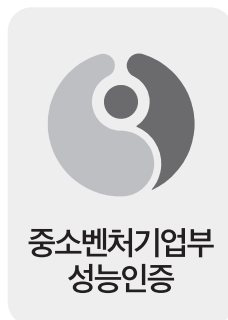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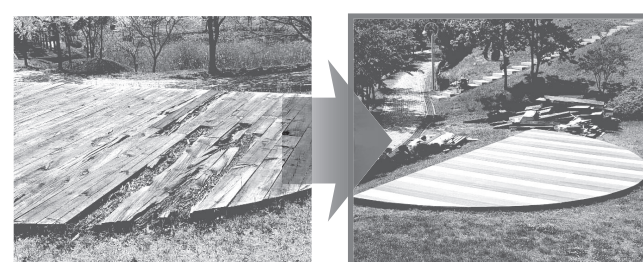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